

서원·도서관에서 듣는 생생한 남도 이야기

광주시 광산구 무양서원
인문학강좌 '인문야연'
7월까지 매주 화요일 열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무등도서관·산수도서관 등
광주 11곳에서 진행

봄을 맞아 서원과 도서관에서 생생한 남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시 광산구 무양서원에서 인문학강좌 '인문야연'(人文夜宴)이 오는 7월11일(오후 7~9시)까지 매주 화요일 펼쳐진다. 문화재청과 광산구가 주최하고 문화전 문협동조합 '상상창작소 봄'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남도 가슴 뜨거운 오지 람으로 세상을 일구다'를 주제로 펼쳐진다.

오는 16일에는 이계표 조선대 사학과 교수가 '선종산문의 개창과 남도'에 대해 들려준다. 통일신라말 남도를 중심으로 사회변혁을 꿈꿨던 불교사상인 '선종'이 탄생한 배경과 과정을 통해 당시 개척적인 남도 백성들의 의지를 엿본다.

23일과 30일, 6월13일에는 예술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조인호 광주비엔날레 정책실장의 '남도의 붓, 세상을 품다', 윤익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의 '남겨진 자들을 위한 미술', 배일동 명창의 '남도의 소리 세상을 울리다'가 잇따라 진행된다.

임선화 전남대 사학과 강사는 6월20일 '해방공간에서의 남도 사람들'을 주제로 해방 이후 격변기 시절 남도민의 대응과 활동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공진성 조



지난 2일 광주시 광산구 무양서원에서 열린 인문학 강좌 '인문야연' 모습. 강좌는 오는 7월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운영된다. <상상창작소 봄 제공>

선대 교수(6월27일)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에서 촛불집회와 남도 역할을 이야기한다. 또한 김정현 '상상창작소 봄' 대표(7월4일)는 '일제의 수탈과 저항의 남도'를 통해 고단했던 시절을 극복했던 원동력을 살펴보고 끝으로 송태욱 시인(7월11일)은 '당당한 힘, 시 속의 남도'를 통해 남도의 문학을 들려준다. 수강료 일반 2만원, 청년학생 1만원. 문의 062-972-3234.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

참여 도서관을 지난해 320개(3554회)에서 올해 400개(약 4000회)로 늘렸다.

올해 사업은 2차로 나눠 운영한다. 1차는 '자유기획형'(지역의 인문콘텐츠, 문·사·철, 과학 등 주제) 300개관, '자유학기

제 연계형'(지역도서관과 자유학기제 시행학교 협업) 20개관 등 총 320개관을 선정했다. 2차로 이달 중 '함께 읽기'(교전 등 주제도서 함께 읽고 토론) 50개관, '함께 쓰기'(자서전, 서평, 영화평, 기행문 등 체험형 글쓰기) 30개관이 추가될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강사 중심에서 참여자가 토론·조사·발표 등 주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이후에도 후속 모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둔다.

1차 선정 광주지역 도서관은 총 11개다. 무등도서관은 임진왜란과 호남의병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산수도서관은 '미술 속 인문학 스토리', 남구문화정보도서관은 '남도에서 발견한 음식 인문학', 남구푸른길도서관은 '시, 소설, 영화와 함

께 찾아가는 시공간'을 기획했다. 그밖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도서관(길 위에서 만난 역사 속 행복찾기), 상록도서관(길 위의 건축, 그 속의 사람), 운남어린이도서관(4차산업혁명시대), 이야기꽃도서관(점·선·면 프로젝트), 장덕도서관(빛 위의 인문학, 도서관에 맡겼다)도 이달 다양한 주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연계형은 일곡도서관과 조선대학교도서관이 선정됐다. 각각 '숲을 찾아 떠나는 여행', '광주의 시간을 따라 걸다'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별 일정 확인과 신청은 '길 위의 인문학'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삶은 끊임없는 걷기와 같은 것”

김신영 시집 '맨발의 99만보' 출간



삶은 끊임없는 걷기의 과정과도 같다. 걸음걸이를 시작하는 것으로 비로소 인생은 시작된다. 걷기를 소재로 한 연작시집이 나와 눈길을 끈다. 기독교인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김신영 시인이 발간한 '맨발의 99만보'(시산 맥)는 삶을 걷기에 비유한 의미 있는 시집이다. 작품집은 계간 시산맥 제13차 기획시집 공모에 당선됐다.

'99만보'는 하루 1만 보씩 99일을 걸어야 완결되는 만만찮은 걸음이다. 물리적인 숫자로 석 달하고도 9일이 걸릴 만큼 적잖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99만보'는 우리 삶의 간단치 않은 여정을 보여준다.

"자존심 같은 거, 인권 같은 거, 존중 같은 거, 배려 같은 거, 그 옛날 민주주의 같은 거, 사라진 혁명의 그림 같은 거, 그 기억은 높은 옥탑방에 잘 모셔두었다(종락)/ 아버지는 가방이 없어 자존심을 버리더니/ 나는 가방끈이 길어도 자존심을 버린다/ 낯선 천국에서는 누군가를 사랑할 시간도 없다/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통 얼굴을 안전모와 마스크로 가리고..."('맨발의 99만보 15')

'맨발의 99만보 15'는 인생길에 놓

인 가혹한 풍경과 현실의 고달픔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살아가는 동안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 일테면 '자존심', '존중', '사랑' 등의 윤리와 맥이 시작되는 인생은 99만보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나와 너의 운명이 다르고 삶의 행로를 예측할 수 없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 일귀내야 한다"고 평한다.

이밖에 시집에는 22편의 연작시 외에도 '불혹의 시말서', '너희들의 산타', '콘크리트 키드', '옹고집 계보학' 등 개성적인 작품들이 담겨 있다.

한편 김 시인은 94년 '동서문학'으로 등단했으며 '화려한 망사버섯의 정원' 등을 펴냈으며 대학교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43기 강좌...내달 4일까지 카페 '노블'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43기 정기 강좌를 개설한다. 내달 4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개최되는 43기 강좌는 문학, 철학, 영화, 클래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들 참여 위주로 진행된다.

정규강좌는 월(오후 2시), 화·수(오후 7시 30분) 강좌로 나뉘어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안철 음악해설가의 '일상에 클래식 선율을-다양한 영상음악 감상 및 해설'이 진행된다. 화요일에는 김경우 박사의 시장교실 '시 창작, 이론에서 실기까지'가 열린다.

수요일에는 인문학 이론 시간으로

'몸의 철학, 메를로 폰티 '지각의 현상학'을 토대로 강독과 토론이 진행된다. 토요일(오후 2시)과 일요일(오전 9시)은 SEMI강좌 시간이다. 토요일 무비토크 시간에는 '영화를 읽는 상상력-미하엘 하네케 감독 특별전'이, 일요일 인문택시 시간에는 '신국강의 여행 수첩-수다(數多)가 필요한 당시는 손님으로 초대합니다'가 예정돼 있다.

수강료 무비토크 1만원, 인문학이론·시창작교실·클래식인문학 각 3만원.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카펠라 그룹 '더 프레젠티' 청년콘서트 '오월의 미래'

16일 광산문화예회관...무료 공연

아카펠라 그룹 '더 프레젠티'가 진행하는 오월 청년콘서트 '오월의 미래'가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광산문화예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산구가 청년예술단체와 무대를 나누는 '화요문화선재'의 첫 번째 무대이다.

'더 프레젠티'는 보컬아시아페스티벌 아시아권 경연대회에서 2위에 오르는 등 실력과 무대 매너를 국내에서 인정받은 5인조 혼성 아카펠라그룹이다.

이들은 공연에서 '첫인상', '잠미' 등 익숙한 대중가요부터 '임진강', '남을 위한

행진곡', '빛고을 아리랑' 등 광주정신을 되새기는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예 싱어송라이터 '신새별'이 특별 출연해 자작곡 '약오르지', '구름 산책'을 비롯해 팝 "Toxic"까지 기타연주와 함께 노래한다. 공연은 조동성 이상 누구나 무료관람 가능하며, 광산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입장을 신청 받고 있다.

'화요문화선재'는 앞으로 격월 둘째 주 화요일에 광산문화예회관에서 개최한다. 'King's Town'(킹스타운), 'T-voice'(티보이스), 'The Present'(더 프레젠티), '공연기획 CCG'가 무대에 오를 계획이다.

문의 062-960-82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더 프레젠티'

광주문화재단 '동화로 여는 이야기 세상'수강생 모집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이 동화연구회와 '동화로 여는 이야기 세상'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동화연구회 광성숙씨가 강사로 나서 아동문학의 이해, 동화연구에 맞는 좋은 동화 선정법, 동화연구의 기법과 창의적인 수업 방법 등을 교육한다.

수강인원은 선착순 20명으로 10일

부터 15일까지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062-670-7968) 하면 된다. 무료.

한편,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서는 올해 '전통예절 배우기', '그림책으로 떠나는 유럽여행', '서양미술사 산책', '영화로 떠나는 시(時)의 세계' 등을 운영한다. 문의 062-670-796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